

“인간愛, 인간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담은 저만의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이금림(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 고등학교 교사
- 1980년 KBS 단막극 <소라나팔>로
드라마 작가 데뷔
- <호랑이 선생님> <고교생 일기>
<은실이> 등 드라마 집필
-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드라마
극본상 수상
- 한국방송대상 수상
- 휴스턴 국제필름페스티벌
드라마부문 수상
-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현)



청소년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 '고교생일기', 멜로드라마 '사랑을 위하여' '푸른 안개', 휴먼가족드라마 '옛날의 금잔디' '은실이' '복희누나' 등 전 세대를 걸쳐 사랑받았던 스타 작가. 지금은 2600명 방송작가를 대표하는 이금림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을 만났다.

●● 대학 졸업 후 국어교사를 하시다가 1980년 드라마 작가로 데뷔를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서울 명성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다보니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답니다. 가르친다는 것에 회의를 느껴 어느 날 문득 학교에 사표를 냈죠. 몇 달 후 우연히 가수 이수만과 성우 송도영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 프로그램에 스크립터로 참여했고, 그 프로그램에서 고정 코너를 만들게 됐어요. <꼭지의 일기>라는 여고생의 일기였지요. 꽤 인기가 높은 코너였는데 그것을 들어본 방송국 PD가 드라마도 쓸 수 있겠다 싶었는지 KBS드라마국에 소개해 KBS무대에 단막으로 데뷔했어요. 그 후 '개구쟁이 철이' '호랑이 선생님' '고교생 일기' 같은 어린이 청소년 드라마를 여러 편 썼습니다. 교사로 일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지요.

●● 전주 한옥마을 '최명희 문학관'에 가면 대하소설 '혼불'을 쓴 고(故) 최명희 작가가 이사장님에게 쓴 친필 편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최명희 작가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전주로 유학을 갔어요. 전주사범 병설중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저녁 식사 후 도서관에 가서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을 읽으면서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최명희는 학교 문예반에서 만났는데 서로가 쓴 글을 인정하면서 친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녔던 중학교 분위기가 엄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자연스럽게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친구는 전주 기전여고에 입학했고 저는 전주여고에 입학했는데, 기전여고에 입학한 최명희는 본격적으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각종 문예콩쿠르에서 최명희의 글이 최우수상으로 뽑혀 기전여고 문예반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요. 당시 기전여고 교복이 자주색이었는데 콩쿠르에 참가한 학생들한테 최명희는 <공포의 자주색 교복>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렸대요. 최명희가 뒤편하면 최우수상이나 대상은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전 친구로서가 아니라 한 독자로서 최명희의 문학을 사랑합니다. 그가 쓴 소설 문장은 <혼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하소설이지만 산문이 아니지요. 전편이 시(詩)입니다

최명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7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좋은 친구였어요.

●● 많은 작품을 집필해오셨는데 특별히 애착이 가는 드라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애착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가장 최근에 집필한 아침드라마 KBS 2TV TV소설 '복희누나'가 최근작이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드라마=막장'이라는 게 공식처럼 되어 있었는데 사실 막장이어서 장사가 됐거든요. 4년 만에 부활되는 TV소설을 1TV에서 2TV 옮기는 것도 그래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원래 TV소설은 1TV에서 잔잔하게 나갔던 드라마인데 2TV로 옮기면 광고수익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복희누나는 막장의 요소가 단 하나도 없었으니 방송국 내부에서 광고수익 때문에도 성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시청률도 16%를 상회했고, 무엇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시대에 꼭 보고 싶은 드라마라고 극찬해 주셨어요. YWCA에서 '좋은 드라마 상'을 받았던 것, 그리고 KBS 2TV 아침 시간대에 아침드라마 프레임을 바꾸고 <TV소설>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복희누나'가 한 역할 했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기분이 좋습니다.

●● 국내 많은 드라마가 불륜, 출생의 비밀, 배신 등을 소재로 다뤄 가족들이 같이 보기에는 민망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시스템이 열악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로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한 방송은 건강한 시청자가 만드는 것 아닐까요? 시청자들이 더 이상 막장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작가도 더 이상 쓰지 않겠지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겠지만요.

예전의 경우 방송작가 혼자서 드라마를 집필했어요. 저도 초창기에는 보조작가도 없이 혼자서 다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작가 여러 명이서 한 작품을 집필하는 시스템으로 차츰 바뀌고 있어요. 미국의 드라마들처럼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집단집필제가 될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작업보다 여럿이 작업하면 아무래도 아이디어도 풍부해질 거고 시청자들에게는 흥미있는 드라마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한 작가의 진지한 작품성이나 특유의 문학성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집단 집필을 하다보면 어떻게 하면 시청자를 감동시킬까보다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놀라게 할까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한 진행과 반전, 그런 것들이 드라마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를 떠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와 같은 문학성이나 예술성 같은 것은 기

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드라마는 어떻게든 재미만 있으면 된다' 그 의견엔 반대입니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어야죠.

방송풍토를 변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 방송작가협회에서는 방송평론가 상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곧 이사회 인준을 거쳐 공고를 낼 생각인데 전문적인 방송평론가를 배출함으로써 방송문화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드라마도 시청률이 아닌 작품성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작품성 있는 드라마가 제대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 드라마를 집필하는 것을 '수틀에 수를 놓는 작업'이라고 비유하셨는데, 혼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시다보면 심신이 많이 지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에는 작품을 마치고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이랑 술자리를 가지는 것으로도 원기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마저도 힘들더라고요. 2009년 '집으로 가는 길' 작품 할 때에는 사경을 헤멜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지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2년 동안 수영을 했어요. 지금은 많이 걷는 편이에요. 외출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틈틈이 많이 걷는 것이 유일한 운동입니다.

잠을 푹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해요. 제가 잠들 때 쯤이면 온 집안이 비상이에요. 한번 깨면 다시 못자니까요.

●●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에 출연한 적이 있고 클래식 음악계 최초로 오빠 부대를 이끌고 다니는 스타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가 작은 아들입니다. 이사장님의 예술적 정서를 물려받아 감수성이 풍부한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 책상이 없었어요.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공부는 학교에서 하지 왜 집에서 하느냐 나무라셨지요.(웃음) 어머니의 교육방법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어요.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거요.

애들은 스스로 알아서 원하는 공부를 하게 한다. 그게 제 교육방침이었지요. 근데 듣기엔 근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을 방치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애들이 웬만큼 큰 뒤 절 성토하더

라구요. 방치해놓고 교육방침 운운했던 제 알팍한 변명을 다 간파한 거죠.(웃음)

둘째 아들 정원인 예능유치원에 들어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학원에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 피아노 선생님께서 정원이가 재능이 있으니까 피아노 전공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말을 듣고 참 심란하고 착잡했어요. 예술가로서의 삶이 얼마나 지난한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지요. 막무가내로 피아노를 치겠다 고집피우고 혼자 예술 중학교 원서를 사왔을 때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번엔 유학 가겠다 고집을 피우더군요.

정말 이길 재간이 없었어요.

자식은 키운다고, 키우고 싶다고 키워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예요.

●● 국내 드라마가 한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드라마를 통해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를 널리 홍보하고 실제로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한류 현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한류는 드라마부터 시작해 요즘은 K-POP으로 이어지고 있어 드라마 작가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한류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작가 개인의 역량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채널이 많아지고 드라마 편수가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군소 제작사 난립으로 졸속 제작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한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산업의 현상은 암울합니다. 핵심동력인 카메라맨, 조명 등 전문 인력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작가 한사람이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차세대 콘텐츠 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 연수 과정 등을 신설해 전문가를 양성해 줘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습득한 노하우가 다시 산업현장에 환원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드라마에서 절실한 것은 드라마의 묘판이라 할 수 있는 단막극의 육성입니다. 단막드라마는 드라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르임에도 방송사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상업논리로 줄줄이 폐지했습니다. 단막극은 신인작가, 연출가, 신인배우 등 신규 인력 양성의 창구입니다. 현재 콘텐츠 진흥원 지원으로 KBS가 단막극을 만들고 있는데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로 4년째 한국전파진흥협회 지원으로 방송작가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셨고, 방송작가 회원들 중 500여명이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주엔 크라운해태 제과 윤영달 회장님을 모시고 '아트 경영'에 대한 강연을 들었는데 작가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작가들에게 이런 재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실감했지요.

그런데 정부 지원이 줄어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 아쉽고 안타까워요. 영국을 비롯한 콘텐츠산업 선진국은 방송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산업에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곧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방송작가를 지원해 줄 예산이 없으면 작가 재교육도 불가능하죠. 한류의 중심이 되는 드라마 발전에 관계기관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역사드라마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방송이 되어 유족들이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도 하고 시사고발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성격상 조정신청도 많은 편입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차원에서 위원회와 상호교류를 통해 방송 제작시 주의해야할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우리 방송작가협회가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으면 하고 바래요. 매년 1박 2일로 위원회가 작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네요. 작가들이 대본을 쓸 때 혹시 있을 수 있는 명예훼손이나 기타 인권권 침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작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방송작가협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매년 1회 '저작권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호랑이 선생님'과 '고교생 일기' 등 청소년 드라마로, '옛날의 금잔디'와 '은실이' 등 가족 휴먼드라마로, 때론 '푸른안개' 같은 멜로드라마로 전 국민적 인기를 누린 작품을 집필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장르의 작품을 구상하시는지요.

내년쯤 새 드라마를 선보일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의 이금림표 드라마를 써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추구해온 인간애, 인간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담은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